

발굴 회제 애국 2代: 탄허 스님과 아버지 김홍규

父 한평생 독립운동 子 국민정신 계몽에 앞장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

“전라북도 정읍군에 큰 교당을 짓고 백 만 명의 신도가 있다하는 태을교는 전라북도

김홍규의 집 마루 밑에서는 지화와 은화를 합하여 107,750원을 넣은 항아리 한 개를 압수하였는데... (중략)

올해(庚寅) 김홍규(金洪奎) 선생은 1888년 5월 2일 ‘징계맹개 외배미들(남디남은 김제·만경 들판을 일컫는 사투리)’이라 불리는 김제평야 제일가는 부자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한일 합방으로 국권이 암울했던 1905년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종교에 입문했다.

1913년에 태을교에 입교했고 곧 태을교 재부주인이 됐다.

만세운동이 크게 일었던 1919년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그해 10월 경북지역 독립자금 10만원을 모금했다.

1920년 9월에는 교도들과 10만1500원을 독립자금으로 마련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탄허 스님의 부친 김홍규 선생(1888~1950)의 독립운동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심민원의 독립자금을 모금했다 발각됐다던 당시 동아일보 기사(왼쪽)와 경성복심법원의 재판 결과를 담은 문서를 통해 김홍규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치했다. 당시 백미 상품품 한가마니의 값이 3원 50전임을 감안하면 이 돈의 오늘날 가치를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던 1921년 독립자금 모금차 평안도로 가다 일본경찰에 체포됐다.

1924년 12월 출옥했지만 사실상 연금 상태로 왜경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의 세력에 밀린 김구 계열의 물락으로 처벌에만 전념하다 50년 9월 28일 한국전쟁의 와

독립자금 모금하다가 왜경에 검거·투옥·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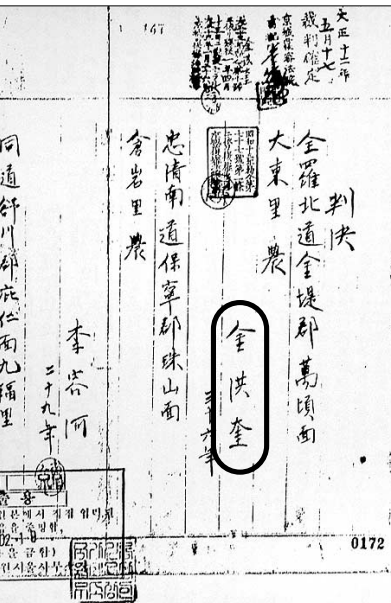
십수년 증거자료 찾아... 올 광복절에 건국포장

탄허 스님 애국심은 독립운동가 부친 영향 커

중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다.

#잊혀진 기억... 13년동안 추적 숨겨져 있던 김홍규 선생의 행적을 발굴한 주인공은, 오랫동안 탄허 스님을 곁에서 모셨던 서우담 거사(도서출판 교림 교리)다.

선생의 지난 행적이 후손과 세인들의 무관심속에 철저히 외면당했다.



탄허 스님은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넘나드는 최고의 대강백으로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관련기록을 찾아 해냈다. 때문에 이번 김홍규 선생의 독립유공자 추서를 바라보는 우담 거사의 감회는 새롭다.

김홍규 선생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무렵이었다.

그러나 우담거사 혼자 힘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역사를 되짚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탄허 스님은 동서양의 정신문화를 넘나드는 최고의 대강백으로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았다.

한국전쟁으로 각종 정부문서가 소실된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독립운동사에서 정당성이 취약했던 이승만 정권이 중국 내 입장과 국내파 독립운동가들의 관련 기록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김홍규 선생과 같은 이들의 자료는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록을 찾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도서관, 국립기록보존소, 법원도서관, 국회도서관, 정독도서관, 고려대도서관 등 안다녀 본 곳이 없다.

#고문당한 아버지 옥바라지 해 일제의 모진 고문에 만신창이가 된 김홍규 선생을 탄허 스님이 1924년까지 옥바라지 했다.

홍규 선생을 탄허 스님이 1924년까지 옥바라지 했다. 부친은 출소 후 농사를 지으며 아들에게 한학(漢學)의 전 과정을 가르쳤다.

당대 기호학파의 거두 이극중 선생으로부터 <시경>을 비롯한 삼경(三經)과 <예기> <춘추좌전> 등 경서를 배워 금세 통달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은 탄허 스님의 속가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아들 다섯에 딸 셋. 8남매 중에 그나마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이는 탄허 스님이 유일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그렇듯 탄허 스님의 형제들도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속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야만 했다.

우담 거사는 “광복 60주년이 지나도록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우리사회의 수치다.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허거 스님도 “매사에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이 앞섰던 탄허 스님의 평소 성품은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의 영향이 컸다”며 “역사바로 세우기가 사회적 화두가 된 요즘, 늦었지만 김홍규 선생의 숭고한 뜻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Advertisement for Living Air air purifiers. Features include: '스님, 불자님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꿈꾸십니까?' (Do you, monks and Buddhists, dream of fresh natural air?), '無 필터 無 병균 無 악취' (No filters, no germs, no odors), and '첨단기술방식 공기청정기 Living Air' (Advanced technology air purifier Living Air). It lists various models like Breeze AT, XL-15Classic, and Fresh Air,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O2 Air.